

중소 배급사·기획사, 버틸 힘 없다

극장가, 연기·취소에 유동성 위기
방송가 광고매출 40% 가량 떨어져
가요계 대형기획사만 온라인 수익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예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확연히 잦아들지 않는 이상 위기상황은 악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금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지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새로운 무대가 좀체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걱정의 시선은 더 커진다.

●“위기 극복? 알아 보이지 않는다”

영화계는 큰 위기에 놓였음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5월 극장 관객은 150만명가량으로, 이는 지난해 5월 1800만여명에서 무려 90%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신작이 개봉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6월에도 개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코로나19 충격: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초 제작현장 실태조사에 응한 82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편이 제작을 연기하거나 중단 혹은 취소해 올해 1~4월 피해액은 213억여원에 달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이재우 정책연구원은 “개봉일이 순차 연기되면서 이미 집합한 홍보예산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중소배급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나마 안정적인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투자배급사들까지 몸을 움츠리는 상황에 그렇지 못한 영화 제작 주체들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영화사 수백 신범수 대표는 “다수의 신작이 없으니 부가판매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작 중단→매출 감소 악순환…언제 고리 끊나?”

방송가와 가요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감염병 위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998년 IMF 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0.2%-한국은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광고 매출 감소 등 방송사 경영악화로 드라마 편수도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속한 한국방송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고 매출이 40%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연기자 출연료 등 제작비가 크게 늘어난 드라마 부문의 기류는 예전 같지 않다. 제작 논의 중단과 취소 등에 따라 연기자들을 거느린 매니지먼트사들의 매출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한 연기자 기획사 관계자는 “톱스타급 연기자들 거느린 대규모 회사가 아니고서는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규모 라이브 공연 시스템을 갖춘 대형 기획사들은 물론 최소한의 인건비 등 경성비를 회수하기 쉽지 않은 중소규모 가요기획사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따르면 대중음악계는 2~4월까지 211개 공연의 연기·취소로 추산 633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나 슈퍼주니어, 슈퍼엠처럼 고가의 유료 온라인 공연이 가능하면 모를까 언급생심이다”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매출은 나오지 않는 힘겨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미생이 된 꼰대’ 김응수

MBC ‘꼰대인턴’서 짠내나는 연기로 재미와 공감

배우 김응수가 지난해 데뷔 23년 만에 맞은 전성기 인기가 해가 바뀌어도 여전하다. 2006년 출연한 ‘타짜’의 캐릭터 폭발용으로 14년 만에 늦깎이 스타덤에 오른 그가 인기의 바탕을 ‘꼰대인턴’의 주인공 이만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응수가 MBC 수목드라마 ‘꼰대인턴’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또 한번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을 뜻하는 ‘꼰대’라는 다소 부정적인 지칭도 김응수를 통하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탄생한다.

‘꼰대인턴’은 김응수가 1996년 데뷔해 처음으로 지상파 미니시리즈의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이다. 5월20일 방송을 시작해 2주 동안 4~6%(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오르내리면서 선전하고 있다. 시간을 맞춰 챙겨봐야하는 한계로 본방송의 시청률은 월등하지 않지만, 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5년 전 약연으로 만난 부장과 인턴사원이 다른 회사에서 위치가 바뀐 채 다시 만나 겪는 웃기면서도 서글픈



김응수

이야기가 공감을 얻고 있어서다.

김응수는 극 중 61세의 나이에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돼 과거 자신이 무시하던 인턴사원(박해진)을 부장으로 ‘모시게’ 된 상황에 놓인다. “요즘 것들”부터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까지 권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지만 한편으로 20대인 인턴 동기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후배인 부장에게도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일깨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 ‘꼰대상사’였던 과거를 깨닫는 과정이 김응수의 ‘짠내 나는’ 연기로 표현돼 재미를 더한다. 김응수는 폭발용 열풍 덕에 광고모델에 이어 드라마의 타이틀롤까지 맡은 상황을 두고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방송 전 가진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잘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면서도 “폭철용과 ‘꼰대인턴’ 이만식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며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응수와 박해진의 투품 코미디 역시 ‘꼰대인턴’의 매력이다. 코미디가 처음인 박해진은 노련미 넘치는 김응수와와의 호흡 덕분에 연기 변신까지 이루고 있다. 이에 박해진은 “이런 호흡이라면 부부 연기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만족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미술관 윤다연 ‘포즈도 남달라’ 2019년 미술마니아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른 피트니스 모델 윤다연이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맥스큐 8월호’ 화보 촬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모노키니’ 수영복을 소화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원픽! 위클리 추천작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의’가 그림다면 스페셜 편을! 하이라이트는 ‘99즈’ 라이브무대

여전히 ‘99즈’가 그림다면 4일 밤 9시30분 tvN에 채널을 맞추면 어떨까.

시즌2를 기약하며 막을 내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촬영 비하인드를 담은 스페셜을 방송한다.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그리고 전미도까지 99학번 의대 동기들의 못다 풀 이야기부터 본 방송에는 담지 못한 카메라 밖 모습을 소개한다.

3월12일 시작해 5월28일 최종회에서 최고 시청률인 14.1%(닐슨코리아)로 막을 내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99학번 의대 동기 5인, 이른바 ‘99즈’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로 시청자를 웃기고 울렸다. 매회 병원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환자들의 사연도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이번 스페셜 방송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눈물과 웃음이 오간 올제병원의 곳곳도 함께 담는다.

스페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99즈’가 이끄는 밴드 ‘미도와 파라솔’이 꾸미는 라이브 무대다. 제작진은 스페셜 방송이 끝난 직후 유튜브 ‘채널 심오야’를 통해 5인이 직접 참여하는 밴드 라이브 무대를 시청자에 선사한다.

이해리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주방의 유해가스 연기로 하루 4,000여명 사망-WHO 세계보건기구 발표

식당 버너 하나 교체 했더니~ 유해가스가 없는 식당이 됐어요!

유해가스 70% 감소, 가스비 30% 절약!

기존 화구는 직선으로 막힌 그릴로 인해 불꽃이 분산되어 가스낭비와 조리시간이 길어졌으며, 화구 구멍이 국물에 막혀 엄청난 가스비가 낭비됩니다. 친환경 코벨소 화구는 불꽃이 가운데로 모여 막힘없이 열효율이 향상되어 조리시간이 단축,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친환경화구

코벨소

정품인증마크

코벨소 친환경 화구

교체전후

가스렌지(간택기)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코벨소 화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가스의 완전연소를 통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억제 및 가스비 절감이 되는 제품이며 주방중사자에게는 건강을 사장님께는 비용 절감효과를 드립니다.

뚜껑만 물에 씻는 간편한 청소!

주철로 만들어진 구형화로와는 달리 친환경 코벨소화구는 세라믹코팅으로 부식을 방지해 녹이 나지 않고 그늘음이 없어 화구정수시 상부의 화구면 관리에 간편한 물청소가 가능한 편리한 친환경화구입니다.

세제로 닦고 행구면 끝!

통식특수세라믹 코팅의 긴 수명 / 부식방지

주철로 만들어진 구형화로와는 달리 친환경 코벨소화구는 통식을 막아 세라믹코팅을 올려 화구의 부식을 막고 구멍 막힘이 없는 화구와 방화대가 분리되어 있는 이중구조로 수명이 길어 안정된 화력과 가스절감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화구입니다.

부식방지, 긴 수명, 구멍 막힘없는 화구

원전연소로 가스비 18~30% 절약!

구형화구는 직선형 구조로 막힘과 부식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구조인데 반해 친환경화구는 터널형 통기구조로 구멍막힘이 없어 불완전연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방환경 개선에 탁월한 화구입니다.

이중 분리 구조로 완전연소, 일산화탄소 70% 감소

자체 효율 테스트 결과 (뚜껑기, 화구, 화력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

	구형화구/구형그릴	친환경화구/구형그릴	친환경화구/친환경그릴
끓는시간	3분30초	3분	2분40초
개선 %		15%	23.8%

■ 남 · 여 영업사원 모집중(활동비 지급)

우리 사장님의 친환경 사랑으로 주방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코벨소 친환경화구 정말 최고예요~!

전 뱅기에서 온 장 마르코입니다. 이곳을 때 부터 동양의 문화에 반해 여러 동양 음식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음식을 좋아해 한국에 온지는 10년 정도 됩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센 불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특출난 맛으로 유명하지요, 저희 나라 벨기에도 뜨거운 열로 만들어 내는 음식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굽거나 찌는화로 형태로 이루어져 음식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요리집도 예전에는 구형화로를 사용해 비위생적일뿐만 아니라 가스는 넘쳐도 음식을 만들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주방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벨소 친환경 화구로 교체해 주시면서 우선 주방이 깨끗해져 위생적이고 가스냄새 걱정 화력걱정 없어요, 요즘은 요리 할 맛 나네요, 감사합니다 코벨소 화구 지도 많이 알리고 다녀야겠어요, 사장님과 코벨소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곳에 사용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고기집(삼겹살, 소고기), 구이집, 생선구이 및 불고기 집, 야외식당, 장아구이 집, 떡볶이 집, 꼬치구이 집, 칼국수 집 등 각종 요리 집 또는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코벨소화구** 검색하세요

문의 1644-4273